

살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인수인계 후 저희들이 온전하게 첫 번째로 지내게 된 9 월입니다. 하루도 허투루 버리는 날 없이 쉬지 않고 달렸는데 서신을 작성하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그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은혜 가운데 진행 되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개원부터 3년 넘게 사무업무를 가능케 한 프린터가 토너 교체 후 인쇄가 부분 부분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내부청소 기능도 사용해 보고 전원을 껐다 켜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이용해 한국의 프린터 서비스 센터 전문직원에게 인쇄물을 보여주며 상담을 했는데 직접 볼 수 없어 확실치는 않으나 '이미지 드럼' 손상 시 일어나는 문제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3년 전 구입했던 영수증을 찾고 프린터를 들고 'Customer Services' 창구를 찾았습니다. 수리에 1~2주 걸린다는 안내를 받고 원인을 찾으면 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꼭 먼저 알려 달라는 당부와 함께 맡겼습니다. 일주일 되던 날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받을 수 없다는 안내음성만 들려옵니다. 회신 전화도 없습니다. 가까스로 통화가 되니 부품을 구하고 있다 합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고 더 이상은 프린터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 전화를 수 차례 걸었습니다.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토너가 문제라 합니다. 토너는 정품으로 교체했고 '이미지 드럼'을 체크하라는 말을 접수할 때 분명히 했건만 토너를 정품으로 썼냐고 묻는 직원의 말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르며 어쨌거나 프린터는 다시 찾아야 하니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매니저에게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니 결국은 여기서는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데 2주가 넘었고 그 동안에 서류업무는 거의 마마되다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리를 맡기면서 '이게 과연 수리가 될까? 중간에 고생할 거 뻔한데 아예 지금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저의 불신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늘 상냥했던 접수 담당 여직원이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하는 행동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여기에서는 'This is Africa' 입니다^^

그럼 2017년 9월의 소식으로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의 첫 번째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 체류비자 발급 & NGO 회계 감사

탄자니아에서도 그랬듯이 우간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업무의 첫 단추가 바로 체류비자 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체류비자가 잘 나오질 않으면 일단 국경을 넘던지 이민 국에 가서 관광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비자 신청레터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장 또는 대표와의 마찰로 인해 체류비자 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주변의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체류비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 피를 말릴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도착직후 업무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고 8월 21일에 여권에 체류비자 발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또한 전산화 작업도 많이 발전하여 주민등록증 처럼 체류증 카드를 발급해 주어서 항상 휴대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바로 '회계감사' 입니다. 회계사를 통해 1년 동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감사 받고 그 보고서가 우간다 국세청(URA)의 기간에 맞게 업무처리가 되어야만 그 기록들이 NGO Permit 연장을 위한 심사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 회계사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펼쳐야 하는 업무인데 8월 8일 첫 미팅을 시작으로 9월 27일 거의 마무리 단계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지만 순조롭게 첫 단추들이 잘 끼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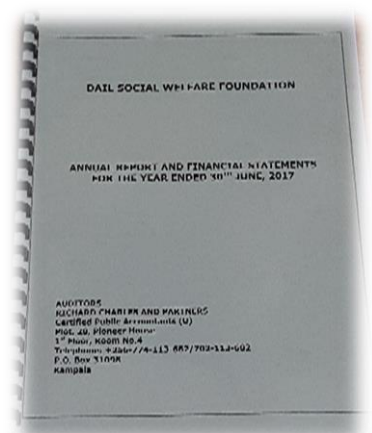
REPUBLIC OF UGANDA <우간다 이민국 로고>



<비자 발급을 위해 기다림은 기본이죠!>



<우간다 신분증입니다^^>



<2016-2017 회계감사 보고서>

●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밥퍼센터 주변의 마을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야 구석구석 둘러보며 생활환경도 자세히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나서 인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티코', '무통고', '비롱고'. 세 개의 마을을 걸어 다녔습니다. 참 평안한 마을입니다.

아프리카의 전매특허!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외국인을 보며 자신을 맘껏 드러내는 멋진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함께 맑아지고 깨끗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고 더워서 농작물을 심기 어려웠던 탄자니아 쿤두치 채석장과는 많이 다르게 빈 땅에 카사바, 콩, 고구마, 사탕수수, 옥수수, 바나나 등. 무엇인가를 심어놓은 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밭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심겨져 있지만 우리나라 옛 농촌과 같이 수확이 될 때까지는 현금 수입이 없어 이들의 삶은 딱딱하다고 Staff '칼렛'은 함께 걸으며 말해줍니다.

아이들은 멀리서도 손을 흔들어주고 아름다운 빅토리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걷고 또 걸는데 키티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레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는 곳을 보면서 공립학교 교사들도 딱딱한 삶을 사는걸 보게 됩니다. 공립학교 조차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계획을 공유했더니 고맙다면서 선뜻 도와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LC1' 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리더들을 만나서 학령기 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을 학교로 입학시킬 수 있는 호프스쿨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Our Children, Our Hope!



<마을에서 물을 길는 아이들>



<처음보는 마을 주민도 친근하게 맞이해 줍니다>



<아이들의 염려없는 천진난만함!>



<빅토리아 호수가 바라보이는 마을 풍경!>



<레비 선생님 감사해요!!>

● 아~~~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지난 달 서신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결연 아동들에게 후원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충분하지 않아 농산물 수확이 적어져서 주식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옥수수 가루 가격이 매달 널뛰기를 합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가게를 비롯하여 주변의 가게들을 돌아보며 시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센터에서 멀지 않은 도매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옥수수 가루와 식용기름을 구입하고 함께 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처음 호흡을 맞추어 보는 터라 배달 시간이 약속보다 40분 넘게 지체 되어 긴장하며 뒷목을 몇 번 잡을 뻔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간 약속까지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이하 우다일)는 2015년도부터 아동결연이 시작 되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육의 질이 낮다는 인식과 현실 속에서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모두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립학교 등록금만 지원되는 상황 가운데 가정형편으로 돈을 더 보태 사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특히 이슬람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종교가 기독교인데 학교의 방침에 의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기독교 교육과 중등교육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바람을 듣고 마음이 아파, 아이들 집에서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는 거리의 사립학교를 방문하여 공립학교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어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맘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Local 시장 가격 조사>



<200 명 가까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교실에서 걸어 나오는 여중생들>



<학교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



<학교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는 중학생들>
<전학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 BACK TO THE SCHOOL 개학...

우간다는 1년에 3학기 제도로 교육이 운영됩니다. 세 번의 방학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방학을 끝내고 9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3학기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빵과 우유와 함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수업에 꼭 필요한 노트와 볼펜, 연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구류 또한 가장 좋은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문구 도매점이 모여 있는 시내 중심가로 가서 직접 가격을 흥정하고 구입 하였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학용품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피곤이 말끔히 씻겨져 나가네요^^

후원자님께서 결연아동의 생일 선물금을 보내 주셔서 아동과 먼저 상담 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키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폴린'은 4학년 입니다. 형제들은 없고 연세가 많이 드신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이 집, 저 집의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방 없이 학교에 오고, 사춘기를 지나 빠르게 여성답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속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방과 속옷과 학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더니 어찌나 좋아하며 행복해 하던지요. 특별히 형편이 어려워 구매할 수 없던 여성용 속옷을 보자 너무나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 움츠리고 다니던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정성을 다해 감사편지를 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폴린'의 미래는 밝습니다. 동의하시죠?^^

Our Children, Our Hope!

[1 대 1 아동결연 문의]

[한국 다일공동체] 02-2212-8004 최수린 주임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김고운 원장



<문구 도매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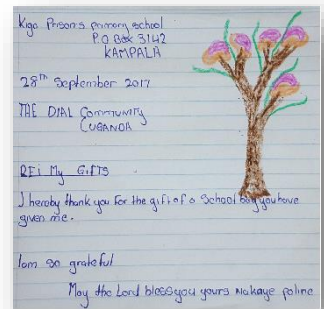
<문구류를 구입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웨바레!!>



<후원자님이 최고야!!>



<아동감사편지!!>

● 아프리카 영화 이야기

선교사님 가정으로부터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몇 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간다의 이야기를 다룬 '더 라스트 킹 오브 스코틀랜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971년~79년까지 집권하며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아프리카의 학살자', '우간다의 폭군'으로 불린 이디 아민에 대한 영화입니다. 실존인물은 아니지만 영화상에서 가정의과 교육을 이수하고 자유와 이상, 변화를 찾아 충동적으로 지구본을 돌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나라인 우간다로 배낭을 꾸린 닥터 '니콜라스 게리건'이 우연히 이디 아민을 만나 주치의가 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역사적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과 의심 가는 부하들을 처리한 일, 경제전쟁을 선언하고 우간다 내 아시아인들을 모조리 내쫓은 일, 엔테베 공항 납치사건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일, 세 번째 부인을 잔인하게 죽인 일 등.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디 아민은 1978년 탄자니아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탄자니아군과 반아민군대에 의해 우간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망명지를 거쳐 최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2003년 사망하게 됩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라 비교적 가장 최근에 우간다를 다룬 이야기여서 이번 추석 연휴 때 한 번 보시면 우간다의 가슴 아픈 역사의 한 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유례 없는 긴긴 연휴기간인 것 같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포스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극중 이디 아민!>



<실제 이디 아민의 모습!>

기도 제목

1.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 받게 하옵소서.
2. 우간다 다일공동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예수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3. 업무 진행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뜻과 길을 알게 하옵소서.
4. 아동 결연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만나게 하소서
5. 주의 사명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6. 호프스쿨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고 준비과정 위에 함께하소서.



변창재 : dail8004@gmail.com Cell : +256 771 072 382 카톡 ID : bcj337
이현신 : hslee0304@hotmail.com Cell : +256 776 149 595 카톡 ID : hslee0304

후원계좌 : 467701-01-231436 (국민은행)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 www.dail.org